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김형옥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조교수 안선희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 Hee Univ.

Master : Kim, Hyung Ock

Major on Child & Family, Kyung Hee Univ.

Assistant Professor : Ahn, Sunhee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Subject consisted of 303 children and their mothers enrolled in preschool at Seoul. A sample of mot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nd teachers rated the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strument.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differed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age. A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s a function of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status. Mo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was related to their children'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심리적 자세(psychological life position), 사회정서 발달(social-emotional development)

I 서 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이다. 유아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최초로 맷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유아의 지적 발달 뿐 아니라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모자녀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더욱 밀접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유아기는 가족중심적인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인간관계를 맷어 가는 시기로, 이때의 성공적인 관계맺음은 이후의 심리적인 적응과 사회적 성공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므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김향은·정옥분, 199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가 끊임없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아의 전인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은 Beme(1966)이 정립한 상호교류분석이론에 의하면 부모 자신의 심리적 자세가 교류를 통하여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한 형태로 간주된다. 심리적 자세(혹은 생활자세: psychological life position)란 상호교류분석 이론의 용어로서 자신이나 타인 또는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나타내며 자신의 결단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심리적 태도로 정의된다. 즉,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심리적 태도를 심리적 자세라 한다. 이는 긍정적 자아개념 또는 부정적 자아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를 각각 갖게 된다.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의 자세를 가지는가 아니면 부정의 자세를 가지는가에 대한 심리적 자세이다.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는 사람

들이 다른 사람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을 뜻하는데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도 역시 타인 긍정의 심리적 자세와 타인 부정의 심리적 자세로 구분할 수 있다(이병래, 1997 재인용).

상호교류분석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자세를 4가지 유형, 즉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자세,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자세,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자세,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자세로 분류한다(김규수·류태보, 1993). 이 유형 가운데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자세는 가장 건강한 자세로서 기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나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자세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은 자신과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함께 잘 지내며 성장한 후에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낼 줄 알게 된다고 한다(이병래, 1997). 이는 부모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자녀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고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등의 부모-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자세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는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유아의 심리적 적응이나 낮은 자존감, 좌절감 등의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Culp & Beach, 1993). 주 양육자인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도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hagle & Barber, 1994). 그러므로 부모가 건강한 심리적인 자세를 가질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타인에 대한 우호성을 가지며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이 추론된다.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남소현·김영희, 2000; 윤정자·김영희, 1998) 역시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적 자세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질, 즉 한 개인의 대인관계의 특성을 좌우하며 따라서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 또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에 부모가 심리적 편견을 가지게 되면 자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들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는 자아개념,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희, 2000; 김선애, 1999; 이병래, 1997).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상을 가지는 부모의 자녀가 사회적 능력과 자아개념 및 정서지능 능력이 높아 부모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세가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제시한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나 조절의 정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자녀의 긍정적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심리적 자세는 그들의 학력이나 직업특성 변수와 관련이 있으며 대체로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더 긍정적인 심리적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유아의 사회정서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등 주로 어머니의 행동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어머니의 보다 근본적인 내면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심리적 자세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를 조사한 몇 편의 기존연구도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로 자아개념이나 정서지능 등의 변수만을 다루었으며 유아의 사회성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어 유아의 사회정서 발

달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함으로써 유아의 전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 사립 유치원과 구립,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303명의 유아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유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가 165명(54.5%), 여아가 138명(45.5%)이었으며 연령은 4세 이하가 65명(21.5%), 5세 118명(38.9%), 6세 120명(39.6%)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기간은 1년 미만이 31.7%, 1년에서 2년 사이가 40.6%, 2년 이상이 26.6%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183명(6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6세 이상이 83명(27.7%), 30세 이하는 37명(11.9%)이 포함되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165명(55%)이었고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138명(45.5%)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세가 특정계층이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형평성과 공사립 유아교육기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유

아교육기관장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용 설문지를 담임교사가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 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다시 유아를 통해 회수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에 한하여 교사가 사회정서 발달 측정도구를 평가하였다. 총 500부가 배포되었으나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303부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병래(1997)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척도도구 제작과정은 이병래 참조). 이 측정도구는 총 56 문항으로 자기에 대한 심리적 자세 중 자기 긍정의 자세(14문항), 자기 부정의 자세(14문항),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중 타인 긍정의 자세(14문항), 타인 부정의 자세(14문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5점 리커트척도(5=매우 그렇다~1=매우 그렇지 않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기 심리적 자세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점수는 28 점에서 140점까지 분포하게 된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총 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자세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병래(1997)가 보고한 신뢰도계수는 자기에 대한 심리적 자세가 .90,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는 .81로 나타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신뢰도는 자기에 대한 심리적 자세가 .89이며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는 0.79이었다.

2)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78)에서 개발한 척도를 이은해와 이기숙(1992)이 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에의 비의존성, 내적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을 살펴본 바 취학전 유아의 사

회성과 정서문제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졌다.

각 요인별로 9문항씩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각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행동상황을 관찰하여 유아의 수행정도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9~45점이고 총점은 54점에서 270점까지 분포하며 총 점이 높을수록 사회정서 발달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연미희, 1998; 장영애, 1987)에서 보고된 평정자간 신뢰도는 .78이고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2, 하위요인별로는 .76~.94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를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사에의 비의존성은 0.88, 내적통제는 0.93,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0.74, 안정감은 0.89, 성취동기는 0.79, 호기심은 0.8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분포와 일반적인 배경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그리고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t검증, F검증,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차이가 있는지, 또한 유아와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사회정서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기애 대한 자세가 3.49, 타인에 대한 자세가 3.56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점수 범위가 1~5점임을 고려 할 때,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심리적 자세는 비교적 긍정에 가까우며 자신보다는 타인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직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분석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t=8.09$, $p<.001$)과 직업유형($t=4.15$, $p<.05$)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연령과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자기애 대한 심리적 자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인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직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결과,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t=6.14$, $p<.05$)과 직업유형($t=4.37$, $p<.05$)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연령과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점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어머니 변인에 따른 자기애 대한 심리적 자세 점수 차이검증

구 분		N	M	SD	F/t
연 령	30세 이하	37	98.03	13.63	.46
	31-35세	183	98.01	12.31	
	36세 이상	83	96.59	12.82	
교육수준	고졸 이하	138	95.36	13.69	8.09**
	전문대졸 이상	165	99.45	11.30	
직 업	유	92	97.15	12.86	.83
	무	211	98.58	11.96	
직업유형	전문직/사무직	56	100.59	10.90	4.15*
	비전문직	36	95.47	95.47	

* $p<.05$, ** $p<.001$

<표 2> 어머니 변인에 따른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점수의 차이검증

구 분		N	M	SD	F/t
연 령	30세 이하	37	101.22	8.70	1.34
	31-35세	183	99.82	9.09	
	36세 이상	83	98.45	8.64	
교육수준	고졸 이하	138	98.22	9.35	6.14*
	전문대졸 이상	165	100.76	8.43	
직 업	유	92	100.03	8.39	1.58
	무	211	98.63	9.15	
직업유형	전문직/사무직	56	100.07	8.34	4.37*
	비전문직	36	96.39	8.08	

* $p<.05$

2.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1) 유아의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유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정서 발달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유아의 사회정서 총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사에의 비의존성($t=8.87$, $p<.001$)과 내적통제($t=30.55$, $p<.001$)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교사에의 비의존성 점수는 높은 반면 내적통제 점수는 낮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유아의 전체 사회정서 발달 점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F=14.34$, $p<.001$),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정서 총점이 높았다(표 4). 하위요인별로는 교사에의 비의존성과 호기심 하위요인을 제외한 5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수에 따라서도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형제수가 많을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좋고($F=3.79$, $p<.05$), 안정감이 있으며($F=2.52$, $p<.05$) 성취동기($F=5.58$, $p<.001$)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5).

2)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6). 분석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문대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유아가 사회정서 총점이 높았으며 ($t=4.25$, $p<.05$), 하위요인 중 또래와의 상호작용 ($t=8.57$, $p<.001$), 교사에의 비의존성($t=5.75$, $p<.05$), 안정감($t=5.47$, $p<.05$)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교사에의 비의존성 영역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며($t=4.14$, $p<.05$)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수

<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점수의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F/t
교사에의 비의존성	남	165	29.16	6.09	8.87*
	여	138	26.94	6.83	
내적통제	남	165	31.96	8.29	30.55*
	여	138	37.05	7.60	
또래와의 상호작용	남	165	31.53	5.65	.02
	여	138	31.62	5.51	
안정감	남	165	33.95	5.02	.07
	여	138	34.00	5.21	
성취동기	남	165	30.95	5.32	1.95
	여	138	31.81	5.40	
호기심	남	165	30.34	6.13	.33
	여	138	30.14	6.56	
사회정서 발달 총점	남	165	182.41	21.26	1.72
	여	138	185.63	21.15	

* $p<.001$

〈표 4〉 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점수의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F	Scheffe
교사에의 비의존성	4세	65	27.80	5.42	.13	
	5세	118	28.19	6.95		
	6세	120	28.31	6.68		
내적통제	4세	65	31.00	7.93	8.29**	a
	5세	118	34.22	8.02		b
	6세	120	36.13	8.44		c
또래와의 상호작용	4세	65	30.26	5.99	2.53*	a
	5세	118	31.68	5.38		b
	6세	120	32.17	5.46		b
안정감	4세	65	32.60	5.06	6.16**	a
	5세	118	33.54	4.93		b
	6세	120	35.15	5.06		a
성취 동기	4세	65	28.48	5.66	14.48**	a
	5세	118	31.50	5.08		b
	6세	120	32.73	4.89		b
호기심	4세	65	29.25	6.41	1.66	
	5세	118	29.85	6.39		
	6세	120	30.91	6.14		
사회정서 발달 총점	4세	65	173.25	20.87	14.34**	a
	5세	118	183.34	20.62		b
	6세	120	190.10	19.78		c

*p<.01, **p<.001

준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기에 대한 심리적 자세($r=.46$, $p<.001$)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r=.45$, $p<.001$)가 긍정적이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는 교사에의 비의존성($r=.17$, $p<.05$), 또래와의 상호작용($r=.63$, $p<.05$), 안정감($r=.57$, $p<.05$), 성취동기($r=20$, $p<.05$) 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바람직할수록 유아는 교사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성취동기가 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에 대한 심리적 자세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자기긍정/타인긍정, 자기긍정/타인부정, 자기부정/타인긍정, 자기부정/타인부정의 4집단으로 분류하여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8〉에 보는 바와 같이 자기긍정/타인긍정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의 유아보다 사회정서 발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위에서 제시한 결과를뒷받침해준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와의 상호작용($F=46.80$, $p<.05$), 안정감($F=30.61$,

〈표 5〉 형제수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점수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F	Scheffe
교사에의 비의존성	외동	49	28.78	5.79	0.27	
	2명	220	28.02	6.67		
	3명이상	34	28.15	6.68		
내적통제	외동	49	32.63	8.74	2.00	
	2명	220	34.33	8.27		
	3명이상	34	36.35	8.25		
또래와의 상호작용	외동	49	31.33	6.86	3.79*	a
	2명	220	31.25	5.39		a
	3명이상	34	34.03	4.08		b
안정감	외동	49	34.24	5.24	2.52*	a
	2명	220	33.64	5.16		a
	3명이상	34	35.71	4.19		b
성취동기	외동	49	29.94	5.81	5.58**	a
	2명	220	31.26	5.24		b
	3명이상	34	33.85	4.79		c
호기심	외동	49	29.96	7.24	0.36	
	2명	220	30.05	6.19		
	3명이상	34	31.00	5.77		
사회·정서 발달 총점	외동	49	180.65	24.44	2.17	
	2명	220	183.59	20.32		
	3명이상	34	190.32	21.37		

*p<.05, **p<.001

p<.05), 성취동기($F=15.10$, $p<.05$)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교육수준과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일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것으로(Thamm, 1972; 이병래, 1997; 김민수, 1999; 김선애, 1999; 김경희, 2000), 학력이 높은 사람은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안정으로 생활의 여유나 심리적 성공감을 가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의 직업여부와 그들의 심리적 자세와의 관련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 심리적 자세는 직업의 종류나 직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다는 선행연구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유아 개인 특성변수인 성별, 연령, 형제수와 관련이 있었다. 나이가

<표 6>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점수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t
교사에의 비의존성	고졸이하	138	29.13	6.60	5.75*
	전문대졸이상	164	30.69	5.84	
내적통제	고졸이하	138	33.65	9.28	1.41
	전문대졸이상	164	34.81	7.51	
또래와의 상호작용	고졸이하	138	30.56	6.20	8.57**
	전문대졸이상	164	32.42	4.85	
안정감	고졸이하	138	33.23	5.56	5.47*
	전문대졸이상	164	34.59	4.59	
성취 동기	고졸이하	138	30.97	5.78	1.17
	전문대졸이상	164	31.64	5.00	
호기심	고졸이하	138	29.48	6.79	2.76
	전문대졸이상	164	31.64	5.00	
사회정서 발달 총점	고졸이하	138	187	22.38	4.25*
	전문대졸이상	164	191.69	16.99	

*p< .05, **p< .001

<표 7>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의 상관관계

	교사에의 비의존성	내적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	사회정서 발달 총점
자기애 대한 심리적 자세	.17*	.06	.63*	.57*	.20*	.06	.46**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12*	.08	.34*	.39*	.33*	.08	.45**

*p< .05, **p< .001

<표 8>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 차이검증

	N=109 자기긍정/타인긍정 M(SD)	N= 45 자기긍정/타인부정 M(SD)	N=57 자기부정/타인긍정 M(SD)	N=92 자기부정/타인부정 M(SD)	F
교사에의 비의존성	28.55(7.22)	28.24(6.39)	27.35(5.66)	28.14(6.28)	.42
내적통제	34.72(8.02)	34.66(8.78)	35.24(7.94)	32.98(8.79)	1.11
또래와의 상호작용	34.84(3.75)a	33.82(5.07)a	29.96(4.16)b	27.58(5.52)c	46.80*
안정감	36.77(3.24)a	35.49(4.28)a	32.98(5.44)b	30.52(4.86)c	30.61*
성취동기	33.14(5.16)a	30.47(4.93)bc	32.83(4.84)ac	28.71(5.01)b	15.10*
호기심	30.87(6.10)	30.42(6.79)	30.75(6.33)	28.74(6.17)	2.20
사회정서 발달 총점	198.89(16.36)a	193.11(17.99)ab	189.11(16.69)b	176.91(19.31)c	26.48**

*p< .05, **p< .001

영어문자는 Scheffe test 결과임

많은 유아가 어린 유아에 비해 사회정서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나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는 연령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방인숙, 1993; 양연숙, 1995; 연미희, 1998). 특히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회정서 발달점수가 높은 것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성차와 관련하여, 여아가 남아에 비해 교사에 의존성은 높지만 내적통제는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결과는 생물학적인 성차에 기인한 탓으로 해석된다. 형제수가 많은 유아가 사회정서 발달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영순(1987)과 김경희(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는 형제자매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대인관계의 기본 요건인 협동이나 경쟁 등을 학습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어머니 관련변인과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정서 발달은 차이가 있었으며,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체로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가 높게 나왔다.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사회정서 발달의 하위영역 중 교사에의 비의존성에만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취업으로 인한 어머니의 물리적인 부재로 유아의 독립적인 태도가 형성된 탓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정의 소득수준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수준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은 가정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나 취업여부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높았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또래간의 상호작용 및 안정감요인사이에서 높은 상관이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지닐 때 자녀의 또래관계 협력성이 좋으며 가정 밖의 생활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감정상태를 형성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재분석한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정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따뜻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어머니가 자신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어머니는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자세를 자각하고 자신의 심리적 자세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을 먼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태도는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내면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특성상 표집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포괄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실제로 심리적 자세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나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들을 규명해 보는 등의 연구가 요청된다.

■ 참고문헌

- 김경희(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수, 류태보(1993). 교류분석치료. 서울: 형설출판사.
- 김민수(1999).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애(1999).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정우분(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0, 179-193.
-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 199-213.
- 방인숙(1993). 가족형태가 유아의 사회정서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연숙(1995). 타아기관의 질, 타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 111-122.
- 윤정자, 김영희(1998).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아동의 범주화와 가족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6, 123-140.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순(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이기숙(1992).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 청담아동문제연구소.
- 장영애(1987).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 특성간의 인과 모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78). 유아의 발달수준 확인을 위한 탐색적 연구. 행동과학연구, 11.
- Berne, E. (1966). *Principles of group treatment*. New York: Grove press.
- Shagel, S. C. & Barber, B. K. (1994).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s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64-974.
- Culp, L. N. & Beach, S. R. H. (1993). *Marital discord, dysphoria and thought of divorce: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Paper presented to the 2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Atlanta, Ga.
- Thamm, R. (1972).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 of others: An exploration into personality syndr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32-350.